

# Theme I

## 3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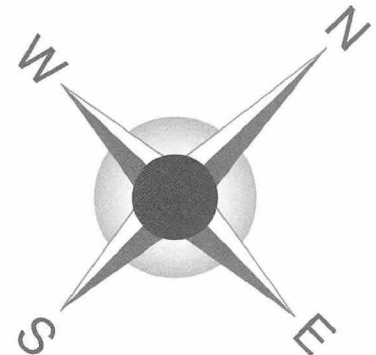


## 2단지



### 범례

- ▶ 산업시설구역
  - 고도기술산업
  - Venture산업
  - 패션디자인산업
  - 기타 지식산업
  - 기타(물류시설)
- ▶ 지원시설구역
- ▶ 공공시설구역



단지



구로가산디지털단지 우수벤처리스트

- |    |              |    |            |
|----|--------------|----|------------|
| 1  | (주)가비아       | 16 | (주)큐리오전자   |
| 2  | 굿젠(주)        | 17 | (주)키스컴     |
| 3  | (주)나노엔텍      | 18 | (주)태진인포텍   |
| 4  | (주)모빌탑       | 19 | (주)틸론      |
| 5  | (주)발해소프트     | 20 | 한국기업인증(주)  |
| 6  | 서울반도체주식회사    | 21 | (주)휴넷      |
| 7  | (주)썬텍        | 22 | (주)기룡전자    |
| 8  | (주)아진비전      | 23 | (주)신영프레시전  |
| 9  | (주)에너지솔루션즈   | 24 | (주)엠젠바이오   |
| 10 | 엠디에스테크놀로지(주) | 25 | (주)엠텍소프트   |
| 11 | (주)오늘과내일     | 26 | (주)열림기술    |
| 12 | (주)은성코퍼레이션   | 27 | (주)파이컴     |
| 13 | (주)잉카인터넷     | 28 | 하이테크시스템(주) |
| 14 | 진영콘텍(주)      | 29 | (주)누리텔레콤   |
| 15 | (주)컴버스테크     | 30 | (주)소프트닉스   |
|    |              | 31 | (주)쓰리알시스템  |
|    |              | 32 | (주)신화모비딕   |
|    |              | 33 | (주)아이레보    |
|    |              | 34 | (주)에이블씨엔씨  |
|    |              | 35 | (주)엠텍비전    |
|    |              | 36 | 오스템임플란트(주) |
|    |              | 37 | (주)유진로봇    |
|    |              | 38 | 이엑스티(유)    |
|    |              | 39 | 잘만테크(주)    |
|    |              | 40 | (주)코리아센타닷컴 |
|    |              | 41 | (주)휴먼메디텍   |

신벤처집적단지 -

# 서울 디지털밸리

몇 년 전 서울 지하철 역 이름 두 개가 바뀌었다. 2004년 2호선 구로공단역은 구로디지털 단지역으로, 2005년 1,7호선 가리봉역은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의 변경이 그것이다. 과거 굴뚝공장과 미싱을 돌리던 여공으로 기억되던 구로와 가리봉. 이제는 첨단과 기술 집약적 기업이 모여 '서울디지털밸리'로 새롭게 거듭났다. 바야흐로 국내의 여느 신기술 집적 단지가 부럽지 않은 '밸리'로 세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 신벤처집성촌에서 신벤처집적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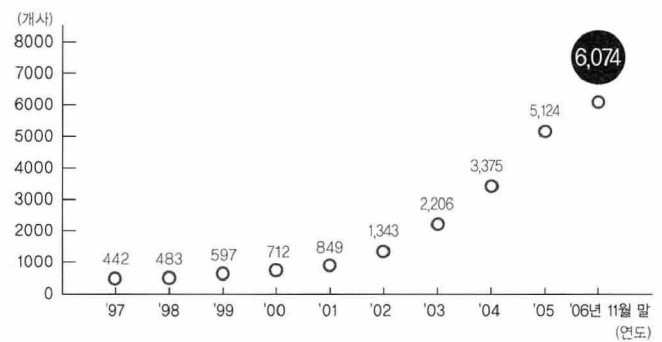
서울디지털밸리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 일대를 아우른다. 구로동 지역은 1단지, 가산동(구 가리봉동)지역은 2, 3단지로 나뉘어지며(지도 참조) 총 면적 1,982천㎡(599천평)에 분양면적 1,638천㎡(495천평)에 이르는 대규모 신산업단지이다. 2006년 11월 현재 6,074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표1 참조), 이중 구로디지털단지에 1,053개 가산디지털단지에 870개 벤처인증 기업이 터전을 잡았다.

기업 수의 증가 못지않게 성과도 탁월하다. 서울디지털밸리를 관리하는 한국신산업단지공단 집계에 따르면 2006년 연간 생산 실적 4조4645억 원, 수출실적 11억 4천만 달러에 이른다. 고용 규모 역시 증가일로로 97년 3만 명 규모에서 06년 말 8만 4,000 명을 기록했다. 특히 IT-비제조 분야의 높은 고용 비중이 눈에 띈다.(표3 참조) 서울디지털밸리의 경우 생산 보다는 기술 개발 위주로 소규모 혹은 시제품 생산 업체가 주를 이룬다. 실제로 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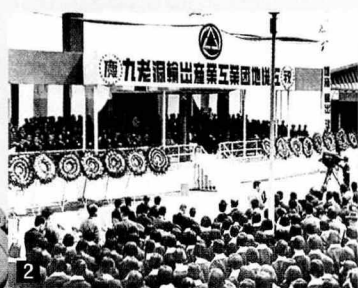
와 가산지역에 자리 잡은 스타 기업들을 살펴보면,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인 '엠텍비전', 치아 임플란트 업체 '오스팀임플란트' 처럼 본사와 연구기능을 서울디지털밸리에서 전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모바일게임업체 '킴투스', 온라인게임업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보안솔루션전문업체 '잉카인터넷' 처럼 '아이디어'를 동력으로 삼는 비제조 스타벤처들도 출현 중이다. 이외에도 디지털도어록업체 '아이레보', 컴퓨터 주변기기업체 '잘만테크', 초소형 카메라폰 모듈업체 '엠씨빅스', 호스팅업체 '가비아', 모바일 솔루션업체 '모빌탑', DB전문업체 '알티베이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업체 'MDS테크놀로지' 등이 구로와 가산이 배출한 스타 벤처들이다. 이들 중 대다수가 강남에서 구로와 가산으로 옮겨왔다.

한편 대기업의 구로행도 활발하다. LG전자는 2005년부터 가산 디지털단지에 'LG전자가산종합연구단지'를 착공, 이동단말기, 홈네트워크 및 디지털컨버전스 관련 종합 연구 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온라인게임사이트 넷마블을 운영하는 CJ인터넷은 역삼동 스타타워에서 구로디지털단지로 이사 왔다. 신세계그룹의 IT부분을 전담하는 신세계I&C도 구로 시대를 시작했다. 벤처든 대기업 이든 이제 서울디지털밸리는 기술중심기업 집적단지로서 자리매김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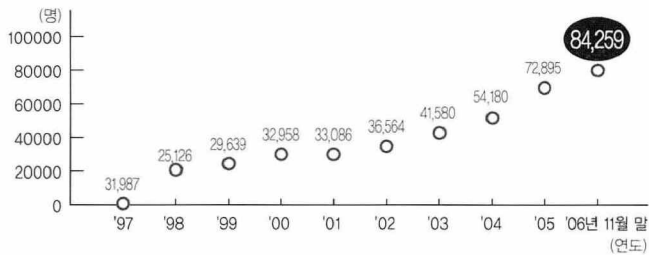
[ 표1 ] 연도별 입주업체 현황



1. 무역의 여신상
2. 구로1단지 준공식(67년)
3. 구로2단지 조성기념 무역박람회
4. 1971년 구로공단
5. 서울 디지털 2·3단지(2006)
6. 서울 디지털(2006)
7. 서울 디지털 2·3단지
8. 서울 디지털 단지 전경(2006)



[ 표2 ] 연도별 고용 현황



입주기업체 : 6,074개사(가동업체 : 4,712개사) (단위 : 개사)

단지별	계	전기전자	기계	섬유의복	종이인쇄	IT		기타
						제조	비제조	
1단지	2,750	6	7	153	76	1,793		715
						415	1,378	
2단지	875	1	3	80	14	651		126
						194	457	
3단지	2,449	4	14	76	103	1,853		399
						524	1,329	
계	6,074	11 (0.18%)	24 (0.3%)	309 (5.0%)	193 (3.1%)	4,297(76%)		1,240 (20.4%)
						1,133 (48.2%)	3,164 (51.8%)	

### 왜 구로인가

구로공단은 1964년 구로동 공업단지 조성을 기점으로 70~80년대 대한민국 경제의 수출산업기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경제환경 변화와 산업의 고도화로 제조업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구로공단은 전반적인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1997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구로단지 첨단화 전환계획'을 수립, 2000년 기존의 구로공단의 이름을 버리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여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연이은 등장으로 서울디지털밸리는 차츰 첨단 의 옷을 입게 된다. 분양 시 취득세·등록세 100%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경감 등의 파격적인 혜택으로 기존 제조업은 물론 벤처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구로와 가산으로

수많은 기업을 불러 모았다. 실제 06년 11월 기준 6,074개 입주업체 가운데 53개 아파트형 공장에 5,539개사가 입주해 있다. 즉 강남의 임대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비용적인 이점이 서울디지털밸리의 가장 큰 매력인 것이다. 또한 구로 이전으로 절감된 비용은 직원복지 향상으로 이어져 직원만족도는 물론 생산성 상승으로 이어지는 실속있는 선순환을 보이고 있다.

### 친구따라 구로간다

구로와 가산의 변신은 현재진행형이다.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는데 반해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의 확충은 아직 뒤따르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외국바이어들이 서울디지털밸리에서 업무를 본 후 숙박문제도 서울디지털밸리가 보완해야 할 점이다. 교통 역시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도로, 시흥대로가 교차하며 인천공항과도 가까운 장점도 있으나 도심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강남이나 종로 보다는 불편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구로구와 금천구는 구로디지털단지과 가산디지털단지 사이 가리봉동 125번지 8만 4,000평 일대를 균형개발 촉진지구로 지정, 본격적인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간다. 구로구와 금천구는 이곳에 2011년까지 호텔, 컨벤션센터 등을 유치해 디지털단지를 지원하는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벤처의 본거지는 강남으로 여겨져 왔었다. 그러나 서울디지털단지에 새 동지를 든 벤처 중 70%는 강남권 특히 테헤란로에서 옮겨왔다고 보면 된다. 꼬리에 꼬리를 물 듯 벤처들이 모이니 협력업체들이 왔고, 금융권이 따라 왔다. 이제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말 대신 친구따라 구로간다는 말이 나올 날도 멀지 않은 듯하다.

